

통합 환경에서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및 수용

권 미 영*

대구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통합 환경인 일반학교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인식 및 수용정도에 대해 알아보고, 통합교육의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시 A와 B, 중소도시 C의 총 9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 10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독립변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신뢰도를 분석하여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반적 특성과 학업수행 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인식차이는 있었다, 둘째,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한 경험은 적었으며, 일반적인 수용과 장점수용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특별한 경험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 일반적수용과 장점수용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으며 통합교육의 대상자인 일반학생과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을 위해 교육의 환경을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통합교육, 중학생, 고등학생, 자폐스펙트럼장애, 인식, 수용

* 대구대학교 강사(mi-young2506@hanmail.net)

1. 서론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2조에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최초로 규정되어진 이래로 현재까지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의 환경이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정책적으로도 학교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특수교육의 기회가 양적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일반교육을 받는 학생과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으로 구분하던 시각이 장애학생을 일반학생과 동등한 교육주체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2015)는 장애학생들의 불합리한 차별과 학습권보장을 위해 통합교육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학생이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애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는 장애학생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이 포함되는데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36.7%였으며, 놀림, 비하, 협박,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 24.0%, 따돌림 등의 괴롭힘이 19.2%, 상해 및 폭행의 경험이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삼섭 외, 2015). 이는 통합교육 내의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학생에게도 해당된다. 이효정(2013)은 국내외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또래들에게서 경험하고 있으며, 경험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또래들이란 통합 환경인 일반학교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일반학생들이 포함된다. 송민애와 이승희(2015)는 이러한 일반학생들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김삼섭 등(2014)은 일반학생의 교육권이 우선시되고 있는 교육의 현실에서 일반학생들은 장애학생들에 의해 자신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을 동등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허영석(2013)은 통합학급의 중학생은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무조건적 배려 등에 부담감을 가지며, 갈등이 유발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입시나 평가 등에 비교적 자유로운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은 장애의 특성과 돌발적인 행동 및 학업수행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통합교실의 일반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이 통합교육에서 배제되거나 방치되지 않으려면 일반교사의 역할(장미순, 이미경, 2013)과 일반학생의 인식(송민애, 이승희, 2015)이 중요하며, 이는 통합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중증장애에 속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중추신경계의 결함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되고 그 증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상동행동 등의 특성과 학업수행의 어려움 및 사회적 의사소통에 심각한 결함을 가진다(이소현, 박은혜, 2011). 그러므로 통합교육의 환경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과 함께 교육받고 있는 일반학생들의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수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Siperstein 등(2007)에 의하면 현실에서는 일반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수용이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경험이나 잘못된 인식이 누적되어 Marshak 등(2012)은 중·고등학생의 시기에는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수용(박순길, 임정숙, 서경웅, 2006)과 상호작용이 심각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동향연구에서 이효정(2013)은 자폐특성 때문에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이 폭력에 노출되어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광조와 이대식(2014)은 일반중학생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새로운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일반학생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권희숙, 한경임, 2013)에는 차별적, 비차별적, 무관심 등의 유형이 있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들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인식(송민애, 이승희, 2015)은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반학생의 장애인식연구는 전반적인 장애 영역(김성진, 2015)에 대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포함한 연구가 대부분이다(정광조, 이대식, 2014). 특히 일반 학생들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적은 연구 대상자수와 초등학생을 포함한 연구로서 중·고등학생들의 인식이나 수용에 관한 폭 넓은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교육에서의 사람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 광정란과 김병하(2004)는 장애학에 대한 담론을 제기하였고, 김병하(2006)는 통합교육에서의 장애학생에서 대한 다양성을 인식 하고 재조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조한진 등(2013)은 개별적이고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실천하여야하며, 장애인들에 대해 도움과 배려라는 고정 관념의 틀을 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과 일반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통합교육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이해교육이나 통합 교육의 질 등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박재국 외, 2006; 신순자, 박정민, 강삼성, 2010; 하만두, 유은정, 2012; Bunch & Valeo, 2004)시킨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방향성과 모든 학생의 교육권 및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환경에서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통합교육에서 장애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양질의 교육을 받고 교육권과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현실적이고 진정한 통합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모든 학생들을 갈등보다는 이해와 화합으로 융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들을 위해 통합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본 연구가 다루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통합환경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통합환경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수용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환경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학생들의 기초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A와 B광역시, C시 등 3개 도시의 총 9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응답형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중·고등학교 담당교사, 특수학급교사, 상담교사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하고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원활한 회수를 위해 2주일 후 각 학교들을 다시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였고, 문자와 전화로 2차례 더 협조를 구하였다. 그리고 3~4주에 걸쳐 1200부의 설문지 중 1123부를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93.58%이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오류 등 답변이 미흡한 설문지 50부를 제외한 최종 1073명의 중·고등학생이 작성한 설문지 1073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성된 연구대상의 특성은 다음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정보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년	1학년	158	23.1	112	28.7
	2학년	244	35.7	245	62.8
	3학년	281	41.1	33	8.5
성별	남	607	88.9	91	23.3
	여	76	11.1	299	76.7

<표 1> 연구 대상의 정보(계속)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통합경험	있음	448	65.6	275	70.5
	없음	235	34.4	115	29.5
담임성별	남	452	66.2	112	28.7
	여	231	33.8	278	71.3
거주지	광역시 A	-	-	367	94.1
	광역시 B	202	29.6	23	5.9
	도시 C	481	70.4	-	-
가족/친구	있음	121	17.72	142	36.41
	없음	562	82.28	248	63.59
전체		683	63.7	390	36.3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김도연, 김성근, 민범일, 2009; 박재국 외, 2006; 송민애, 이승희, 2015; 정광조, 이대식, 2014)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인식과 관련하여 통합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활동, 교우관계,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조사이므로 신경생리학적 인식, 전반적인 특성, 특별한 경험 및 장점 수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설문지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설문대상의 기본정보와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대해 2개의 범주를 나누어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구분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1. 기본 정보	대상자의 정보	1, 2, 3, 4, 5, 6	6	
2. 자폐인식	1) 신경생리학적 인식	7, 8, 9, 20	4	
	2) 전반적 특성에 대한 인식	10, 11, 12, 13, 14, 15, 16, 19, 21	9	
3. 개인적인 수용	2) 학업수행에 대한 인식	17, 18	2	.87
	1) 특별한 경험	22, 23	2	
	2) 일반적인 수용	24, 26, 27, 28, 31, 32, 33, 35	8	
3) 장점 수용	25, 29, 30, 34, 36	5		

첫째,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년, 성별, 통합경험, 담임성별, 거주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형 6문항, 인식에 대해 응답형 15문항, 수용에 대해 15문항의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15문항은 ‘그렇지 않다(0점)’, ‘모르겠다(1점)’, ‘그렇다(2점)’의 Likert식 3점 척도로 배점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수용의 12문항은 ‘그렇지 않다(0점)’, ‘그렇다(1점)’의 2점 척도로 배점하였고 긍정적인 수용의 3문항은 역순으로 점수를 배점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잘못된 인식, 적은 경험, 부정적인 수용이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 도구의 내적일치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의 Cronbach’s α 값은 0.83~0.92, 전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0.87로 나타났으며, 이는 측정개념 간 신뢰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해 두었다.

셋째, 연구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일반교사 2명, 특수교사 3명, 특수교육학 전공 교수 3명, 교육학 전공교수 2명에게 설문지의 요소 및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후 신경생물학적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넷째, 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성 타당도 중 수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30항목에 대해 요인분석 결과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을 ‘신경생물학적’, ‘일반적 특성’, ‘학업수행’, ‘특별한 경험’, ‘일반적 수용’, ‘장점 수용’으로 명명하였다. 표본적합도인 KMO(kaiser-Meyer-Olkin)는 .9355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카이제곱 값은 12780.436, 자유도는 435로 유의확률은 0.000($p < .001$)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의 요인 적재 값을 산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40보다 높은 공통성을 보여 제거해야 할 항목은 없었다(강병서, 김계수, 2009). 이와 같은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3	4	5	6
고유값	8.241	4.355	1.306	1.190	1.057	1.007
설명변량	27.471	14.518	4.354	3.966	3.523	3.223
누적변량	27.471	41.989	46.343	50.308	53.831	57.054

KMO = .935, Bartlett $\chi^2 = 12780.436$ ($p < .001$)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설문은 2015년 5월~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 된 1123부의 설문 중 오류, 잘못된 응답, 빠진 응답 등의 설문을 제외한 1073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ver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문항은 자유회답방식인 명목형, 순차적인 형식인 순서형인 Likert식 2점과 3점 척도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way Anova),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자표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정보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에 대한 인식,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학생에 대한 수용정도,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학생에 대한 인식차이는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의 인식과 수용정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구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원배치분산 분석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하여 각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인식

1) 신경생물학적 특성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신경생물학적 특성을 중·고등학생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은 2점 만점에 평균 .80점, 고등학생은 평균 .65점이며 전체 .74로 나타났다. 이는 1점의 '모르겠다.' 보다 낮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잘못된 인식 또는 낮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생물학적 특성인 자폐병증의 지속성, 뇌 발달과 연관성, 치료가능성, 발병 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신경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표 4>에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인식차이 $t = 5.491$, $p = .000$ 이고, 남녀의 성별($M = 1.03$, $SD =$

.65; $M = .90$, $SD = .64$)에 따른 인식은 $t = 3.126$, $p = .00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가족 중에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거나 친구로 지낸 경험을 가진 학생들($M = .65$, $SD = .45$; $M = .77$, $SD = .41$)의 인식차이($t = 3.976$, $p = .000$)가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신경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론적인 지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신경생물학적 특성의 인식차이

		N	M	SD	t/F	p	Scheffe	
학교	중등	683	.80	.40	5.491	.000	C>A C>B	
	고등	390	.65	.45				
성별	남	564	1.03	.65	3.126	.002		
	여	509	.90	.64				
통합	유	723	.75	.42	1.533	.125		
	무	350	.71	.40				
거주지	광역시A	367	.65	.45	16.400	.000		
	광역시B	225	.72	.41				
	도시C	481	.82	.38				
가족/ 친구경험	유	263	.65	.45	3.976	.000		
	무	810	.77	.41				
성별	중	남(a)	607	.79	10.176	.000	a>d>c	
		여(b)	76	.79				.44
	고	남(c)	91	.62				.45
		여(d)	299	.66				.45
학년	중	1	158	.81	7.623	.000	중1>고1>고2, 중2>고2, 중3>고2	
		2	244	.79				.40
	고	1	112	.65				.45
2		278	.65	.45				
통합	중	유(e)	448	.79	14.873	.000		e>g>h, f>g>h
		무(f)	235	.80				
	고	유(g)	275	.70			.46	
		무(h)	115	.53			.40	
전체		1073	.74	.42				

2) 일반적 특성의 인식차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인 눈 마주침의 어려움, 놀이유형, 상동행동,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대해 중학생 1.20점과 고등학생 1.31점, 전체 1.24점의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2점 만점에 '모르겠다.'이상의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잘못된 인식, 낮은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점수가 높아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더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모두 생물학적 특성보다 일반적 특성의 점수가 높아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인식차이를 <표 5>에서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인식은 $t = -4.921, p = .000$, 거주지 A, B, C($M = 1.33, SD = .44; M = 1.23, SD = .42; M = 1.17, SD = .33$)에 따른 인식은 $t = 14.4066, p = .000$ 이고,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족 또는 친구로 지낸 경험을 가진 학생들($M = 1.03, SD = .63; M = 1.21, SD = .37$)의 인식차이는 $t = -3.5356, p = .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A 광역시가 다른 두 도시보다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일반적 특성의 인식차이

		N	M	SD	t/F	p	Scheffe
학교	중등	683	1.20	.37	-4.921	.000	A>C, A>B
	고등	390	1.31	.44			
성별	남	564	1.33	.51	-1.489	.137	
	여	509	1.38	.52			
통합	유	723	1.22	.41	-1.222	.222	
	무	350	1.26	.36			
거주지	광역A	367	1.32	.44	14.406	.000	
	광역B	225	1.23	.42			
	도시C	481	1.17	.33			
가족/ 친구경험	유	810	1.21	.37	3.535	.000	
	무	263	1.03	.63			

<표 5> 일반적 특성의 인식차이(계속)

		N	M	SD	t/F	p	Scheffe
성별	중	남(a)	607	1.19	8.734	.000	d>c>b>a
		여(b)	76	1.22			
	고	남(c)	91	1.27			
		여(d)	299	1.33			
학년	중	1	158	1.12	9.103	.000	중1>고1>고2, 중2>고2, 중3>고2
		2	244	1.20			
		3	281	1.22			
	고	1	112	1.24			
		2	278	1.34			
		2	278	1.34			
통합	중	유(e)	448	1.18	9.014	.000	고무>고유>중무, 고무>고유>중유
		무(f)	235	1.21			
	고	유(g)	275	1.29			
		무(h)	115	1.36			
가족 / 친구	중	유	121	1.23	10.574	.000	고유>중유 고유>고무>중무
		무	562	1.18			
	고	유	142	1.38			
		무	248	1.28			
전체		1073	1.24	.407			

3) 학업수행 특성의 인식차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학업수행 특성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학업수행인 읽기와 쓰기를 배울 때의 어려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2점 만점에 전체평균 .98점, 중학생은 평균 1.01점, 고등학생은 평균 .94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잘못된 인식 또는 낮은 인식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중학생의 점수가 고등학생보다 높으므로 고등학생의 인식정도가 중학생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합 환경의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자폐스펙트럼학생들의 학업수행 특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증가하였고 일반적인 특성보다 학업수행 특성의 인식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통합교육환경의 영향이라 판단할 수 있다.

<표 6> 학업수행 특성의 인식차이

		N	M	SD	t/F	p	Scheffe
학교	중등	683	1.01	0.50	2.130	.033	C>A
	고등	390	0.94	0.57			
성별	남	564	1.17	.69	.886	.376	
	여	509	1.14	.69			
통합	유	723	.964	.52	-2.082	.038	
	무	350	1.03	.51			
거주지	광역시A	367	.95	.57	5.154	.006	
	광역시B	225	.92	.55			
	도시C	481	1.04	.45			
가족/ 친구경험	유	263	.96	.48	-1.685	.092	
	무	810	1.03	.62			
성별 고	남(a)	607	1.01	.48	2.824	.038	a>c
	여(b)	76	.94	.54			
	남(c)	91	.86	.51			
	여(d)	299	.97	.58			
학년 중	1	158	.94	.48	2.432	.046	중3>고1
	2	244	1.05	.46			
	3	281	1.0	.53			
고	1	112	.90	.44	3.206	.022	f>g
	2	278	.95	.61			
중	유(e)	448	.99	.51	3.206	.022	
	무(f)	235	1.03	.41			
통합 고	유(g)	275	.90	.55	3.206	.022	
	무(h)	115	1.01	.60			
전체		1073	.98	.52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학생에 대한 학업수행 특성의 인식차이를 <표 6>에서 살펴보면 $t = 2.130$, $p = .033$ 이고, 거주지 A, B, C($M = .95$, $SD = .57$; $M = .92$, $SD = .55$; $M = 1.04$, $SD = .45$)에 따른 인식은 $t = 5.154$, $p = .00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가족의 구성원이나 친구로 지낸 경험을 가진 학생들($M = .96$, $SD = .48$; $M = 1.03$, $SD = .62$)의 인식은 $t = -1.685$, $p = .09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점수가 낮고, 직접적으로 학업수행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학업수행 특성에 대해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자폐스펙트럼학생에 대한 수용정도

1) 특별한 경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특별한 경험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과 함께 공부를 한 특별한 경험이나 3개월 이상의 교우관계를 유지하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자폐스펙트럼장애인이 있는 경우,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과의 추억이나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특별한 경험정도는 1점 만점에 전체평균 .82점, 중학생은 평균 .87점, 고등학생은 평균 .72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잘못된 인식, 적은 경험, 부정적인 수용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의 특별한 경험은 많지 않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등의 참여로 인해 중학생보다 경험이 많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특별한 경험의 차이를 <표 7>에서 살펴보면 $t = 7.254$, $p = .000$ 이고, 통합경험($M = .85$, $SD = .30$; $M = .74$, $SD = .36$)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특별한 경험차이는 $t = 5.383$, $p = .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경험의 차이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험의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1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잘못된 인식, 적은 경험, 부정적인 수용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을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통합경험이 있는 고등학생($M = .70$, $SD = .46$)보다 통합경험이 없는 고등학생($M = .53$, $SD = .40$)의 특별한 경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합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이나 특별한 활동의 경험이 많았거나 설문지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기술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7> 특별한 경험의 차이

		N	M	SD	t/F	p	Scheffe	
학교	중등	683	.87	.28	7.254	.000	C>A B>A	
	고등	390	.72	.36				
성별	남	564	.86	.30	5.687	.000		
	여	509	.74	.35				
통합	유	723	.85	.30	5.383	.000		
	무	350	.74	.36				
거주지	광역시A	367	.73	.36	25.935	.000		
	광역시B	225	.81	.32				
	도시C	481	.89	.27				
성별	중	남(a)	607	.87	.29	18.578		.000
		여(b)	76	.87	.28			
	고	남(c)	91	.78	.35			
		여(d)	299	.70	.36			
학년	중	1	158	.92	.24	18.312	.000	중1>고2 중2>고2 중3>고2 고1>고2
		2	244	.85	.29			
	고	3	281	.85	.30			
		1	112	.81	.33			
통합	중	2	278	.69	.37	64.295	.000	e>h f>h g>h
		유(e)	448	.79	.40			
	고	무(f)	235	.81	.38			
		유(g)	275	.70	.46			
	무(h)	115	.53	.40				
전체		1073	.82	.32				

2) 일반적 수용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일반적인 수용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표 8>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과의 대화, 행동에 대한 두려움, 같은 반에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 함께 놀이, 사귀려는 시도, 삶의 공간 수용 등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일반적인 수용정도는 1점 만점에 전체와 중·고등학생의 수용정도가 모두 .7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수용이 나타난다고 해석하므로 수용에 대해 .50점보다 높은 보통이상의 점수로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해 중·고등학생은 부정적인 수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일반적인 수용차이를 <표 8>에서 살펴보면, 남녀성별($M = .74, SD = .26; M = .67, SD = .28$)의 차이는 $t = 3.081, p = .002$ 이고, 중학생의 성별과 고등학생의 성별에 대한 차이가 $t = 6.226, p = .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의 점수보다 높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수용이 나타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남학생의 수용정도가 더 부정적이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외의 학교, 통합경험, 거주지 등에 따른 수용차이는 없었으며, 평균 .70이상으로 부정적인 수용정도가 높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경험의 낮은 결과와 비교해보면 부정적인 수용은 통합 환경이 제공되기 시작한 시기가 오래지 않아 경험이 적은 것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8> 일반적 수용의 차이

		N	M	SD	t/F	p	Scheffe	
학교	중등	683	.71	.27	-.221	.825		
	고등	390	.71	.26				
성별	남	698	.72	.26	3.081	.002		
	여	375	.67	.28				
통합	유	723	.71	.26	.787	.431		
	무	350	.70	.27				
거주지	광역시A	367	.72	.26	.856	.425		
	광역시B	225	.69	.27				
	도시C	481	.716	.27				
성별	중	남(a)	607	.72	6.226	.000	c>a>b c>d	
		여(b)	76	.62				.30
	고	남(c)	91	.78				.18
		여(d)	299	.69				.27
전체		1073	.71	.27				

3) 장점수용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장점 수용정도를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의 장점, 특별한 능력, 이해능력 등에 대해 중·고등학생의 장점 수용정도는 1점 만점에 수용정도가 모두 .6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50점보다 높은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수용이 나타난다고 해석하므로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의 장점수용정도는 부정적 수용에 가깝고 장점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장점수용의 차이를 <표 9>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생물학적 특성의 하위변인들인 자폐병증의 지속성, 뇌 발달과 연관성, 치료가능성, 발병에 대해 1점의 '모르겠다.'보다 낮은 .74점으로 나타났고 점수가 낮을수록 높게 인식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통합교육이 장애를 병리학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김성애(2014)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분법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신순자, 박정민, 강삼성, 2010)이 높은 통합 환경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일반적인 질병이나 감기와 같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능하거나 전염되는 병이 아니고 뇌의 문제와 연관성(손정우, 김혜리, 2013)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복합적 신경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상호작용의 결합 등 행동적 증후군(이소현, 박은혜, 2011)으로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생물학적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의 지원체제에 맞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함께 교육받는 일반학생들의 긍정적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김성애, 2014; 신현기, 2014). 하지만 선행연구(권희숙, 한경임, 2014; 정광조, 이대식, 2014; Siperstein et al., 2007)에 의하면 일반 중·고등학생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신경생물학적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높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의 병리적인 특성은 이해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통합교육에서 자신들과 다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경험의 유무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들의 인식은 2점 만점에 .65과 .77으로 나타나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이나 친구를 가진 학생의 인식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가족을 가진 유무가 일반학생의 자폐성장애특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송민해와 이승희(2015)의 연구와 상반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장애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구성원이나 친구경험을 가진 중·고등학생들의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이론적인 정보나 인식이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이 .65점으로 중학생 .80점보다 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합교육을 통한 경험의 증가가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중·고등학생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일반적인 특성인 눈 마주침의 어려움, 놀이유형, 상동행동,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대해 1.24점으로 '모르겠다.' 이상의 점수가 나타나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의 인식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자폐성장애에 대한 일반학생의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지만 긍정적이지도 않다는 송민애와 이승희(201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학생 1.20점보다 고등학생이 1.31점으로 점수가 높아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더 낮았다. 이는 송민애와 이승희(2015)의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식보다 자폐성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더 낮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더 긍정적이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인식이 덜 긍정적이라는 박순길, 임정숙, 서경웅(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의 점수가 1.12이며 고등학교 2학년의 점수가 1.3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나 인식은 덜 긍정적이며, 중학교 1학년이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통합교육의 환경에서 학업에 방해를 받는 등의 부정적인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생물학적 특성보다 일반적인 특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학생들이 자폐 스펙트럼장애의 일반적 특성을 고쳐야하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학업을 방해받는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셋째, 중·고등학생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학업수행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학업수행 특성인 읽기와 쓰기를 배울 때의 어려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수행이 가능한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 2점 만점에 .98점으로 1점의 '모르겠다.'에 가까워 구체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학생은 1.01점으로 고등학생도 .94점으로 중학생보다 점수가 낮아 인식의 정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의 인식보다는 학업수행 특성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송민애와 이승희(2015)의 학습활동이 교우관계나 일상생활에서의 인식보다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통합 환경이지만 자폐 스펙트럼장애학생들은 주요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수학급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업수행에 도움을 받아야하고, 일반적인 학업성취는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통합의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들과 통합경험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의 인식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송민애와 이승희(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학업수행의 특성을 더 이해하고 있다고 나타나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통합경험의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학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통합교육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의 통합교육은 물리적인 통합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사고 및 행동의 시스템이 일반학생과 다른 장애학생에 대한 차이(조한진 외, 2013)를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원체제가 매우 부족하다.

통합학교의 일반학생은 교육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게 배려와 도움의 강요라는 갈등과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허영석, 2013). 그러므로 통합교육의 환경에서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 또는 일반학생 어느 한쪽의 관점이 아닌 모두에게 평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2015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제처, 2015)’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발달장애인에 속하는 자폐 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현장에서 중·고등학생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시스템의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의 수용에 대해 하위영역을 특별한 경험, 일반적 수용, 장점수용으로 나누어 일반학교 중·고등학생의 수용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교, 성별, 통합의 유무, 거주지, 가족 또는 친구 경험의 유무, 중·고등학생의 성별과 학년 및 통합유무를 하위변인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한 경험은 적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특별한 경험이 많았다고 나타났다.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교우관계를 3개월 이상 유지한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과의 추억이나 활동을 한 경우의 특별한 경험은 1점 만점에 전체 .82점으로 점수가 높아 특별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은 .87점으로 고등학생 .72점보다 높게 나타나 특별한 경험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은 봉사활동 등의 참여와 같은 접촉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실제적인 접촉의 봉사활동을 통해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하만두와 유은정(2012) 등 선행연구(송민애, 이승희, 2015; Bunch & Valeo, 2004; Slininger et al., 2000)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하는 특별한 경험과 직접적인 접촉할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접촉과 특별한 경험정도에 대해 알아본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며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통합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Siperstein et al., 2007)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물리적인 접촉이나 상호작용이 아니라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교육이 필요하고 인식과 수용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용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폐스펙트럼 장애학생과의 대화, 행동에 대한 두려움, 같은 반에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 함께 놀이, 사귀려는 시도, 삶의 공간 수용 등의 일반적인 수용정도에 대한 중·고등학생은 1점 만점 .7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수용정도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보통이상의 점수이고, 중·고등학생 전체가 같은 점수이므로 자폐스펙트럼 장애학생에 대해 대부분이 부정적인 수용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점수가 나타나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Siperstein 등(2007)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공감 능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교육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일반적인 수용정도는 상호작용과 태도 및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장애이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권효진과 이숙향(2008)의 연구는 본 연구와 연관성이 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장애이해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환경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학교지원체계의 확립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장점수용정도는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장점수용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의 장점, 특별한 능력, 이해능력 등의 장점 수용정도에 대해 중·고등학생은 1점 만점에 수용정도가 모두 .6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장점수용정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며, 부정적인 수용정도에 가깝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하위변인들 간에 수용 차이는 없었고, 가족구성원 중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거나 친구의 경험이 있어도 이들의 장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육이 장애학생과 통합교육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Siperstein 등(2007)의 연구와 일치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장점 수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송민애와 이승희(2015)도 통합경험이 있거나 가족이나 친지 중에 자폐스펙트럼 장애학생이 있어도 자폐스펙트럼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들은 부정적인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살피야한다는 부담감과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의 관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중증장애가 대부분이고 일반학급에서의 배려와 보살핌이라는 장애학생 중심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허영석, 2013). 이로 인해 장애학생들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식과 수용은 부정적일 수 있다. 특히 평가와 입시 등의 시험을 치루는 일반학생들은 학업수행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은 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교육에서 사람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 선행연구(곽정란, 김병하, 2004; 김병하, 2006)는 목적수행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과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고 있다.

조한진 등(2013)은 개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통합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일반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기본적인 교육권과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연구자들은 깊은 반성적 사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깊이 있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법을 연구하여야 하며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진정한 통합교육의 틀 안에서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지원방안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제언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통합 환경에서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및 수용과 관련 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광역시 A와 B, 중소도시 C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연구결과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일반화의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전국적 또는 더 많은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중·고등학생학생의 인식과 수용뿐만 아니라 장애당사자의 인식과 수용에 대한 양적이고 질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통합교육의 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장애 인식과 수용 및 이해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병서, 김계수 (2009).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한나래.
- 곽정란, 김병하 (2004). 장애담론의 정치적 이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49-263.
- 교육법전편찬회 (2001). **교육법전**. 교육주보사.
- 교육법전편찬회 (2014). **교육법전**. 교육주보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5).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보도 자료. 서울: 저자.
- 권효진, 이숙향 (2008). 학교 전문상담교사의 비장애 중학생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상담연구지**, 16(2), 33~54.
- 권희숙, 한경임 (2013). 통합학급 일반 여고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5(3), 273-297.
- 김삼섭, 박은혜, 김기룡,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2014년도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도연, 김성곤, 민범일 (2009). 통합 체육수업이 초등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3(4), 803-822.
- 김병하 (2006). 특수교육에서 교과교육론의 정립.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7(4), 43-62.
- 김성애 (2014). 우리나라 장애이해교육의 의미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14(2), 53~73.
- 김성진 (2015). 융합적 장애인식 교육 설계를 위한 초·중·고등학생의 장애 인식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3(11), 539-547.
- 김용욱, 강성중, 이인 (2011). 한국 특수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경제학 사고적 접근 : 교육경제학과의 통섭(統攝). **특수교육학연구**, 45(4), 197-218.
- 박재국, 강영심, 안성우, 김자경, 황순영 (2006). 초·중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8(2), 1-25.
- 박순길, 임정숙, 서경웅 (2006). 통합교육 환경에서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학습장애,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또래아동의 장애인식태도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47(1), 221-244.
- 법제처 (201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법제처 (201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20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 손정우, 김혜리 (2013). 깨진 거울인가 깨지지 않은 거울인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4(3), 109-123.
- 송민애, 이승희 (2015). 자폐성장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통합학급 일반학생의 인식. **정서·행동장애연구**, 31(1)155-172.
- 신순자, 박정민, 강삼성 (2010).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이 초등학교의 장애 인식 및 장애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차이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9(3), 171-197.

- 신현기 (2014). 마르틴 부버의 "만남"의 철학에 기반 한 장애이해교육의 재구성. *지적장애연구*, 16(2), 107-133.
- 이소현, 박은혜 (2011).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이효정 (2013). 자폐성 장애학생과 학교폭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및 문헌분석. *자폐성 장애연구*, 13(2), 87-109.
- 장미순, 이미경 (2013). 초등학교 일반교사가 인식하는 자폐성장래 학생의 이미지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29(1), 327-355.
- 정광조, 이대식 (2014). 일반 중학교 비(非)장애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통합교육연구*, 9(2), 69-92.
- 조한진, 강민희, 정은, 조원일,곽정란, 전지혜, 정희경 (2013).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 서울: 학지사.
- 허영석 (2013). 중학교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혁신연구*, 23(2), 1-39.
- 하만두, 유은정 (2012). 장애 이해 프로그램 적용이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 영상자료 활용과 봉사활동-.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pp.203-220.
- Bunch, G., & Valeo, A. (2004). Student attitudes toward peer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and special education schools. *Disability & Society*, 19(1), 61-76.
- Marshak, L. E., Dandeneau, C. J., Prezant, & L'Amoreaux, N. A. (2012). *The school counselor's guide to help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kjisa Publisher, Inc.
- Siperstein, G. N., Parker, R. C., Bardon, J. N., & Widaman, K. F. (2007). A national study of youth attitudes toward the inclusion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73(4), pp 435-455.
- Slininger, D., Sherrill, C., & Jankowski, C. M. (2000). Children's attitudes toward peers with severe disabilities: Revisiting contact theory.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7(2), 176-19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and Acceptances for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an Inclusive Environment

Kwon, MI Young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egree of perceptions and acceptances of students who study in inclusive classrooms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where students with an autism spectrum disorder were integrated and to provid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s basic materials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of inclusive education. To do thi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073 students of the nine general middle and high schools in A and B Metropolitan City and C Cit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t-test, one way ANOVA,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udents of the general middle and high school had recognized the neurobiological characteristic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but had not specifically recogniz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academic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there were perceptions' differences of the neurobiological and academic performanc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cond, there were a little special experience for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the general acceptance and the advantages accommodate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were lower. There were differences in special experience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ut no differences in the general acceptance and the advantages accommodate. Based on the discussions of these results, it was presented the less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 general students and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Key Words : inclusive education, stud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perceptions, acceptances

논문 접수: 2015. 11. 05 심사 시작: 2015. 11. 10 게재 확정: 2016. 01. 19